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해상법은 국제화
해운계약서는
국산화하자”**

ABC 부수인종매제
한국ABC협회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표지인물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국 로펌 해외사무소의 침병들
‘철거 위기’ 사랑의교회 주민소송 패소



지평 양곤 사무소 고세훈 변호사 해외근무 자원한 로스쿨 출신 1호 “미얀마는 아시아의 마지막 보고”

한 국 로펌의 해외 진출이 꾸준히 진전되며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 지평의 미얀마 사무소에서 활약하는 고세훈(39) 변호사는 해외사무소 근무를 자원한 로스쿨 출신 1호 변호사쯤 되는 주인공으로, 가장 성공한 해외근무 한국변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013년 3월 지평 미얀마 사무소에 부임해 2014년 말까지 근무한 후 서울 본사로 복귀했다가 2016년 중반 미얀마 투자가 증가하며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 수석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인터뷰했다.

미얀마 근무는 자원한 것인가.

“그렇다. 정확하게는 해외근무를 자원했다. 지평이 때마침 미얀마에 진출하면서 미얀마로 가게 되었다. 지평에 입사하면서 해외에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평의 해외전략과 죽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로HING야족 사태 영향 없어

-요즈음 미얀마에 대한 투자 분위기는 어떤가. 미얀마 정부군의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이동한 로HING야족 사태는 영향이 없나.

“법률시장은 나쁘지 않다. 처음 진출하는 투자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성격상 투자 성숙기에 발생하는 분쟁도 여러 건 있다. 인수합병이나 투자허가,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영업 라이선스 취득, 합작투자 협상 및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자문과 현지에서의 사업체 운영에 관련된 법률 및 조세 자문, 노무 자문이 많다. 한때 미안마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뜨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 분위기를 다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2016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본사로 복귀해 서울과 미안마를 왔다 갔다 하며 일을 보았는데 일이 늘어나며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나온 것이다. 특히 2018년 들어 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로항아족 사태는 투자 등 법률시장 경기에 전혀 영향이 없다. 미안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기에 영향이 있으려면 서방국가의 제재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미안마가 한국의 기업 등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안마는 한반도의 3배가 되는 넓은 영토에 인구가 5800만명이다. 특히 이 나라는 2012년 미국이 제재를 풀기 시작할 때까지 서방국가의 제재에 묶여 한 번도 개발을 한 적이 없다. 풍부한 자원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평균연령이 낮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안마에서 생산해 선진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등에서 매우 유리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의 봉제사업체 등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미안마의 양곤엔 지평 외에 법무법인 울촌, 태평양도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가장 먼저 진출한 지평이 가장 성공적으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지평이 2013년 사무소 개소 이후 지금까지 자문한 것만 600여건

외국기업 상대 자문도 많아

지평은 특히 일본기업과 중국, 독일, 태국, 말레이시아 기업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미안마 투자 등과 관련해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다. 그만큼 지평의 자문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로, 고 변호사는 “일본기업을 예로 들면, 미쯔이, 이토추 등 일본의 대형 상사와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법인 설립부터 세무, 회계 등에 관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

“한반도의 3배 되는 넓은 영토에 인구 5800만명의 미안마는 2012년 제재 풀릴 때까지 한 번도 개발한 적 없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미안마에 일본 로펌들도 진출해 있지만 일본 로펌 대신 지평에 자문을 의뢰하는 일본기업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고 변호사는 또 “우리는 전통적인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세금도 대신 납부해주고, 등기도 해주는 등 고객의 미안마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2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자문위원 등 4명의 프로 외에도 4명의 미안마 변호사와 2명의 미안마 회계사, 회계 전문인력 등 모두 15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법률과 조세 자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체계가 미비한 나라에서는 경험이 장땡 아닌가요. 600건이 넘는 사건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문경험을 축적한 지평에선 불법영업이 아니라면 어떠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세 면제

통산 약 4년 정도 미안마에서 근무했다는 고 변호사는 기억에 남는 케이스로, 한-미안마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확인하여 미안마에서 최초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던 일(2015년)과 신한은행을 대리한 한국계 최초의 외국 은행 지점 인허가(2016년 초), 주 미안마 한국대사관과 공조하여 2013년 말 마무리한, 한국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며 진출한 포워딩 사업 인허가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위 건은 100%의 지분으로 진출한 마지막 포워딩 사업으로, 이후 아세안 국가인 미안마에서의 포워딩 사업은 외국인투자자가 70%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교수들이 로스쿨 인재상으로 아껴 “해외에선 현장이 최고죠”

고세훈 변호사는 2004년에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삼성테크윈에 곧바로 직장을 잡았다. 대학 시절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기도 한 그는 이어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로 옮겨 3년간 재무와 원가관리 부서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그는 로스쿨이 도입되자 진로를 바꿔 2009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첫 신입생으로 입학해 본격적으로 법률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다.

로스쿨 3년간 전액 장학금 받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 다닐 때 미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그는 로스쿨 첫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졸업할 때까지 여섯 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생회비만 내고 건국대 로스쿨을 마쳤다. 그는 “건국대 로스쿨이 장학금도 많지만, 보통 로스쿨에서 30% 내에 들면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로스쿨이 법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학부시절 경영학을 공부하고 유창한 영어실력에 기업체 근무경험까지 더한 그는 로스쿨이 추구하는 취지와 이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재상으로 교수들도 많이 아꼈다고 한다.

풍부한 사회경험에 진취적인 자세가 돋보였던 그는 로스쿨 2학년때 일찌감치 지평의 낙점을 받고 1년 후 지평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 미안마 전문가로 경력을 더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해외근무에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것.

그는 “한국의 법률시스템이 상당히 정치하게 구비되어 있고, 로스쿨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며 “로스쿨에서 밀도 있게 공부한 후 로펌 등에서 2~3년 경험을 쌓으면 어느 외국 변호사와 맞붙어도 밀릴 게 없고, 해외에서 잘 할 수 있다”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했다.

미안마 콘도미니엄법 논문 기고

예컨대 미안마의 콘도미니엄법상 집합소유자, 공동소유자, 비례적 소유지분, 조합은 한국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유부분, 공유자, 지분권, 관리단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해 우리 법령을 참고하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 법률 집행의 방향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미안마 변호사와 함께 미안마 콘도미니엄법을 소개하는 논문을 작성, 조만간 발행될 건국대 부동산 전문 학술지에 기고하기도 했다.

“용장(勇將)보다 지장(智將), 지장보다 덕장(德將)이 낫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최소한 해외에서는 덕장보다 현장(現場)입니다. 해외에 나와 보면 선례가 없는 사안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선례가 있으면 그걸 바꿔야 하는데, 선례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하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해외사무소 경험은 엿지 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억 20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케이스는 2012년 한국과 미안마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미안마 세무서가 이를 따르지 않고, 공무원들도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물론 앞으로 더 이상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미안마 국세청 최초의 사례다. 고 변호사는 “고객 회사의 해당 영업이 협약상 법인세 면제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 미안마 헌법이 인정하는 조세 협약상 한국 고객의 법률상 지위는 미안마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법인세 환급 및 법인세 면제지위 확인 신청서를 미안마 국세청에 제출하여 1년 이상 소요된 끝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고객의 니즈를 깨워 그 권리를 보호받게 해주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 아니냐”고 힘주어 말했다.

-2018년의 미안마 법률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투자의 증가와 함께 자문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1914년 식민지 시대에 제정되었던 회사법이 거의 100년 만에 전면 개정된 현대 회사법 체계가 오는 8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자유롭게 내국인 회사의 지분을 3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관련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또 1948년 독립 후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콘도미니엄법이 제정되어 2017년 12월 시행령 공포까지 마쳤다. 건물의 25%까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외적으로는 처음 해외투자를 시도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에 진출했던 기존의 투자자들이 미얀마에 투자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미얀마는 사람들의 손기술이 좋고 착하고 순하다.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자원이 풍부해 미얀마를 아시아의 마지막 보고라고들 하는데, 회사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변하는 등 미얀마 투자에 다시 한 번 길조가 보이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많지는 않다.”

고 변호사는 이어 “지평 입장에서 전형적인 주식·영업의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설립과 같은 조직구조 변경(restructuring)에 관한 자문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개방에 맞춰 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영화 제작·배급업 등의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자문도 늘어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로스쿨 진학 전 5년간 회사 다녀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기업체에서 5년간 근무하기도 한 고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시쳇말로 공장용



고세훈 변호사가 양곤 사무소의 미얀마 변호사, 패러리걸 등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어를 써가며 소통에 나서 기업 관계자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그는 특히 “서울 본사의 미얀마팀과 미얀마 현지사무소를 연계해 자문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지평의 장점”이라며 “고객사의 미얀마 주재원이 한국으로 복귀해도 자문을 맡고 있는 지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신임 주재원이 지평 미얀마를 통해 인수인계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새로 부임한 주재원보다 자문사가 고객사의 현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미얀마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미얀마 진출을 검토하거나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조언할 것은 없을까.

고 변호사는 “미얀마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잘 하면 거의 다 된다’고 해석하고 이를 기회로 보는 것이 맞다”는 말로 얼른 답을 내놓았다.

“기회와 위험 공존”

“미얀마엔 수십 년간 계속된 군부의 행정 관행과 2015년 선출된 최초 민주정부의 도전이 공존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에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고 적절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위험을 잘 통제해서 아시아의 마지막 땅 미얀마에서 성공의 기회를 잡으라”고 고무적인 접근을 반복해 강조했다. ■

김덕성 기자

“
미얀마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잘 하면 거의 다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기회로 보는 것이 맞아

”